

광주 ‘작은도서관’, 운영비·인력난에 흔들린다

시, 354곳 대상 운영실태 설문조사
프로그램 운영비·도서 구입비 부족
문화사랑방 역할...활성화계획 수립

광주지역 풀뿌리 독서 문화의 거점인 '작은도서관'들이 만성적인 운영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들은 광주시와 자치구의 정책적 지원에 대체로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관내 작은도서관 354곳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91%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적인 고충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운영비 부족'이 31%(51건)로 1위를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이 30%(50건)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도서 구입비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32건이나 됐다.

실제로 지원받고 싶은 분야를 묻는 항목(중복 응답)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33%(7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서 구입(32%), 도서 정리(22%), 도서관 홍보(13%) 순으로 지원 요구가 많았다.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도 이번 설문조사에 담겼다. 기타 의견에는 운영 인력 부족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활동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문 사서가 없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많아 도서 정리와 큐레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순회 사서 등 전문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의견도 다수 접수됐다.

보조금 정산 시스템인 '보템e' 사용의 복잡함을 호소하며 절차 간소화와 교육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리도 있었다. 이 밖에도 낡은 서가 교체,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 강사 정보 공유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바라는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이 68%로 남성(2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23%)와 60대(22%)가 뒤를 이었다. 40대에서 60대까지 합치면 전체의 78%에 달해, 사실상 지역의 중장년 여성들이 골목길 도서관의 불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운영 주체별로는 사립이 8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공립(작영)은 13%, 공립(위탁)은 5%에 그쳤다.

이는 광주시의 작은도서관 정책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운영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영 기간은 10년 이상 된 곳이 33%로 가장 많

아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곳들이 다수였으나, 1년에서 5년 사이의 비교적 신생 도서관도 31%를 차지해 신규 조화를 이뤘다.

광주시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작은도서관들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했다"며 "2026년 지원 계획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맞춤형 운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1월 중으로 2026년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계획을 확정해 자치구에 통보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공모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h@kwangju.co.kr



다시 청와대로
윤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이사 작업이 착수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 본 청와대. 성탄절 전후로 이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제관 국장 이달의 편집상 수상

‘우주 관문’高興, 높이 흥하다

유제관<사진>광주일보 편집국제작총괄국장 이 이달의 편집상 종합 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290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으로 종합부문에 유국장의 '한국의 '우주 관문'高興, 높이 흥하다'(<11월28일자 1면> 등 부문별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국장은 남도의 끝자락 고흥(高興)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고흥이 우주로 향하는 관문이자 글로벌 우주 강국 실현의 핵심 지역이 되어 이름값을 하게 됐다는 의미를 제목에 담았다. 또 누리호 발사 모습을 다중 촬영한 사진을 배치해 편집의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국장은 지난 5월과 10월 '결혼하러 왔는



‘11월 28일자 1면’

가 이혼하러 왔는'(<4월16일자 1면>로 283회 이달의 편집상과 2025 한국편집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이달의 편집상'은 전국 53개 신문 통신사 소속 회원 1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한국편집기자회의 밤에서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교수신문, 올해 사자성어 ‘變動不居(변동불거)’

“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불확실한 시대 안정 고민”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뽑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

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면서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이었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쿠광 美본사 상대 집단 소송 추진 “징벌적 손해배상”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광을 상대로 국내에 이어 미국 본사를 겨냥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법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광 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발표한다.

대륜 관계자는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법적 대

응에 나설 것"이라며 현지 원고인단 모집 확대를 예고했다.

앞서 쿠광은 지난달 29일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쿠광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가 자본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 과반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형 만원주택’ 열기 뜨겁다...최대 경쟁률 154대 1

광양·무안 5호씩 모집에 각 187명·49명 신청...내년초 공개 추첨

월 1만원에 신축 아파트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최대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마감된 광양·무안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에 236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는 광양과 무안에 각각 5호씩을 모집했는데, 광양에 187명, 무안에는 49명이 만원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광양에서 모집한 청년 일반공급 1호 공급에 154명이 몰렸다. 출산가구

등 정책 배려 우선공급 8대 1이라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 시·도 전입 예정 청년 공급의 경우 19대 1을 기록했고 출산가구 4대 1, 자립준비청년 2대 1로 집계됐다. 또 일반공급인 신혼부부 유형은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안 역시 최대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호만 공급하는 청년 일반공급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타 시·도 전입 예정 청년 공급 6대 1, 출산가구 5대 1이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그 동안 공공에서 공급하던

주택들과 비교해 거주 면적이 25평형(청년), 33평형(신혼부부)로 상대적으로 넓다. 청년층의 취미 생활과 신혼부부의 출산 및 양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적을 설계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달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검증을 진행한 뒤, 내년초 공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계약 체결과 입주는 2026년 1월 중 개별 안내될 계획이다.

장종호 사장은 "시지역 만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주거복지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영암나눔태양광1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사동면 원항리 1801 외 30필지(총 31필지)
 - 발전소 면적: 154,370.8㎡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26,000kW
 - 사업개시예정일: 2028년 11월 이후
 - 사업종결예정일: 2028.11.01 ~ 2048.10.31.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식회사 영암나눔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열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5.12.02~2025.12.10(7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51-8012 - 팩스: 02-6251-7777
 - E-Mail: skim@soulenergy.co.kr

※ 해당 사업 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영암나눔태양광2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사동면 원항리 1684 외 41필지(총 42필지)
 - 발전소 면적: 203,222.3㎡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34,000kW
 - 사업개시예정일: 2028년 11월 이후
 - 사업종결예정일: 2028.11.01 ~ 2048.10.31.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식회사 영암나눔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열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5.12.02~2025.12.10(7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51-8012 - 팩스: 02-6251-7777
 - E-Mail: skim@soulenergy.co.kr

※ 해당 사업 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73년을 밝히려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용 봉 433-1503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충 장 222-8171	• 동 명 222-9054 • 중 양 222-9054
남 구	• 남 부 673-6836 • 봉 선 673-6836 • 진 월 671-7276	• 백 운 651-1833 • 송 하 675-6605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2 • 윤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침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